



우상혁이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가볍게 바를 넘은 뒤 ‘뽀빠이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우상혁 예선 ‘공동 1위’ 내일 오전 새 역사 연다

높이뛰기 세계선수권 결선

이진택 이후 23년만 쾌거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집중”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2m17, 2m21, 2m25, 2m28을 차례대로 넘는 동안 ‘바와 몸의 차이’는 꽤 컸다. 예선이 2m28에 종료하지 않았다면, 우상혁은 더 높이 날아올 수 있었다. 우상혁에게 곧 ‘더 높이 날아올 기회’가 주어진다.

우상혁은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남자 높이뛰기 결선은 한국시간으로 19일 오전 9시 45분에 열린다.

우상혁은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예선은 준비한 대로 경기를 잘 운영했다. 결선을 치르는 것처럼 집중해서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3일 후 결선에서도 오늘처럼 잘 집중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예선에 출전한 28명 중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경기를 마친 선수는 우상혁과 무

타즈 예사 바심(31·카타르), 장고 로벳(30·캐나다), 안드리 프로첸코(34·우크라이나) 등 단 4명뿐이었다.

로벳과 프로첸코는 바가 살짝 흔들린 순간이 있었다.

그러나 우상혁과 바심은 ‘웃기’으로도 바를 건드리지 않았다.

바심은 2m17을 뚫 뒤, 2m21을 패스하고서 2m25와 2m28을 넘었다.

바심과 함께 도쿄올림픽 공동 1위에 오른 장마르코 탐베리(30·이탈리아)는 2m25와 2m28을 모두 3차 시기에서 넘어 힘겹게 결선에 진출했다.

올해 초 발목과 허벅지 통증에 시달린 탐베리는 아직 지난해 8월 열린 도쿄올림픽 때의 몸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다.

미국 대표 선발전에서 2m33을 넘고 우승한 켈비 맥큐언(26·미국)도 이날 예선에서는 2m28 1, 2차 시기에 실패하고, 3차 시기에 힘겹게 넘었다.

예선 경기에서 드러난 ‘현재 기량과 몸 상태’를 보면 19일 결선 우승 경쟁은 우상혁과 바심의 2파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우상혁은 올해 5월 14일 ‘바심의 홈’ 도하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바심을 꺾었다.

당시 우상혁은 강한 바람을 뚫고 2m33으로 우승했고, 바심은 2m30으로 2위를

했다.

우상혁은 “바심은 훌륭한 선수”라고 한역 최고 점퍼를 예우하면서도 “바심을 한번 이겨보니, 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19일 결선에서 우상혁이 바심을 또 꺾으면, 한국 육상은 물론이고 세계 육상 역사에도 남을 진기록을 작성한다.

한국 선수 중 실의 경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20km 경보의 김현섭(2011년 대구 동메달), 단 한 명뿐이다.

우상혁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선수권 챔피언에 오른다.

이미 그는 올해 3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서 2m34로 우승하며 ‘한국 최초’의 기록을 썼다. 바심은 세계실내선수권에 출전하지 않았다.

미국으로 출국하며 “가장 무거운 메달을 들고 오겠다”고 말한 우상혁이 목표를 달성하면, 세계 육상에도 진기록도 탄생한다.

우상혁은 “나는 늘 최선을 갈망한다”고 했다.

우상혁은 19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한국 육상 최초 기록과 세계 남자 높이뛰기 역사에 남을 진기록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안양과 0-0 아쉬운 무승부

승점 1점 추가 그쳐

광주FC가 FC안양과 홈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수적 열세에도 골문을 내주지 않아 승점 1점을 획득했으나 페널티킥 기회를 놓치는 등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광주는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7라운드 안양과 경기에서 득점없이 비기면서 승점 1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광주는 김종우가 전반 42분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렸다. 그럼에도 안양에 밀리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빈 광주는 후반 26분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산드로의 슈팅이 안양 골키퍼 정민기에게 막혔다.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광주는 승점 52(15승7무3패)로 선두를 지켰고, 안양은 승점 42를 기록하며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연합뉴스

조선대, 1·2학년대학축구연맹전 결승 진출

오늘 전문대와 격돌

조선대학교가 제17회 1, 2학년 전국 대학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했다.

조선대는 지난 16일 강원도 태백 고원1구장에서 열린 대회 태백산기 준결승 용인대와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조선대는 전반 13분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하프라인에서 최승호가 연결한 볼을 받은 노의왕이 골대 왼쪽에서 쇄도, 상대 골키퍼를 제치고 가볍게 용인대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3분 용인대에 동점골을 허용했으나 집중력을 발휘한 조선대가 결승골을 뽑아냈다. 후반 25분 최승호의 패스를 받은 진호진의 왼발슛이 용인대 왼쪽 골대안으로

충남아산은 경남과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지난 10일 전남 드래곤즈에 4-0 완승을 거둔 충남아산은 최근 2연승, 10승9무6패(승점 39)를 기록하며 5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이날 맞상대였던 6위 경남(승점 32)과 승점 차를 7로 벌였다.

이번 시즌 K리그2에서는 1위가 K리그1로 승격하고, 2위는 승강 플레이오프 직행, 3-5위는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갈 기회를 얻기 때문에 5위와 6위의 차이는 매우 크다.

충남아산은 후반 24분 이학민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다가 각도가 없는 측면에서 문전을 향해 올린 공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 결승 득점이 됐다.

창원축구센터 보수로 인해 이번 시즌 홈 경기를 진주와 밀양에서 치르다가 이날 시즌 첫 창원 경기에 나선 홈팀 경남은 최근 7경기 연속 무패(3승4무) 상승세가 끊겼다.

/연합뉴스

빨려들어가면서 2-1 역전에 성공했다.

1점의 리드를 지킨 조선대는 결승행을 확정했다.

조선대는 18일 오후 2시30분 태백시종합운동장에서 전문대와 우승다툼을 벌인다.

백두대간기에 나선 호남대는 한남대와 준결승에서 2-3으로 패했다.

호남대는 전반 16분 박상훈이 선제골을 성공시켰으나 전반 37분과 44분 연속실점으로 리드를 내줬다. 후반 32분 세번째 실점으로 1-3이 된 호남대는 후반 36분 박성휘의 만회골로 2-3으로 따라갔으나 더이상 점수를 내지 못했다.

제17회 1,2학년 전국 대학축구연맹전은 59개팀이 참가해 백두대간기와 태백산기2개 리그로 진행됐다.

/최진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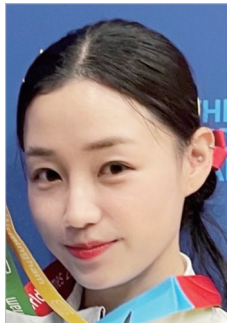
전남우슈협회 서희주 버밍햄 월드게임 동메달

전남우슈협회 서희주가 2022년 버밍햄 월드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서희주는 지난 7~17일 미국 버밍햄에서 열린 2022년 버밍햄 월드게임에서 검술·창술전능에 출전, 베트남, 캐나다에 이어 종합점수 18.32를 획득,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2019년 세계우수선수권대회 이후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국제대회로 월드게임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부터 6위권 선수들만 참가를 할 수 있다.

서희주는 지난해 6월 전방십자인대 재수



서희주

아시안게임에서 꼭 금메달을 획득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진화 기자

축제 같은 ‘울스타전’

나눔울스타 6-3 승리

미스터 울스타 정은원

레전드 선수 40인 투표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국보 투수’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의 시구로 시작해 올 시즌 뒤 은퇴를 선언한 ‘리빙 레전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의 작별 인사로 추억에 잠겼던 ‘40주년 울스타전’에서 마지막에 가장 큰 합성을 끌어낸 선수는 나눔 울스타 정은원(한화)이었다.

나눔 울스타(LG·키움·NC·KIA·한화)는 16일 서울시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울스타전에서 ‘연장 승부차기’ 접전 끝에 드림 울스타(kt·두산·삼성·SSG·롯데)를 6-3으로 꺾었다.

양 팀은 정규이닝 9회까지 3-3으로 팽팽하게 맞섰고, 역대 6번째 연장전이자, 2011년 이후 11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인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드림 울스타는 마무리 오승환(삼성)이 남아 있었지만, 포수 김민식(SSG)을 마운드로 불러들였다.

김민식은 1985년 김성환, 2018년 강백호



지난 1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2022 신한은행 SOL KBO 울스타전이 열렸다. 이날 울스타전에서 선수들은 정규시즌에선 볼 수 없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야구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연합뉴스

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울스타전에 등판한 야수’로 기록됐다.

정은원은 기자단 투표에서 100% 지지(21표 중 21표)를 얻어, 미스터 울스타에 뽑혔다. 그는 상금 1,000만원도 챙겼다.

올해 울스타 베스트12 팬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 영예를 얻은 양현종은 ‘최다 득표 감사’라고 적은 유니폼을 내보이며 팬들의 합성을 끌어냈다.

/연합뉴스

광주야구인동우회장기

동성중 우승·무등BC 준우승

최우수선수상에 서다름

동성중학교가 지난 11~15일 순창팔덕다목적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6개 야구팀이 참가, 리그전(A조=충장BC, 진흥중, 광주BC·B조=무등BC, 동성중, GJ스타즈BC)으로 열렸다.

동성중은 우전으로 인해 첫 경기를 추점 패했으나 둘째날 GJ스타즈BC를 20-1(5회 콜드게임)로 이겨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충장BC를 3-1로 이긴 동성중은 대회 마지막날 무등BC를 8-2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동성중 서다름이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동성중학교가 지난 11~15일 순창팔덕다목적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동성중 박현우가 우수투수상을 수상했다.

동성중 이태훈은 타격상(11타수8안타)과 최다도루상(2개)을, 김근화는 최다타점상(5타점)을 차지했다. 무등BC 장욱과 김태강은 각각 감투상과 미기상을 받았다.

동성중 강대성 감독은 감독상, 김중석 부

장이 지도상을 수상했다.

제26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와 제2회 광주시야구소프트볼 협회장기 초등학교 저학년 야구대회는 다음달 8~10일 첨단야구장에서 열린다.

/최진화 기자